「성경과 신학」 제56권 (2010): 243－81.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언약 사상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의 상관관계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and the Thought of Covenant Among Puritans in New England

윤종훈 (총신대학교/역사신학)

일부 청교도 연구가들은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이 국가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을 거부하여 왔거나 약화시켰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청교도 연구가들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 당대 청교도들의 사회적 책임론과 그 책임적 방법론에 대한 신학적 배경을 탐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지도자들은 성경적 언약론에 입각하여 사회적 책임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둘째,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이중 언약론 즉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개인언약 사상을 하나님의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적용하여 실현하고자 최

* 본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041-A00089).

* 논문 접수일: 2010. 5. 28. 수정 접수일: 2010. 7. 2. 게재 확정일: 2010. 7. 23.

선을 다했다.

셋째, 이들은 개인언약 사상 중 은혜언약 영역을 발전시켜 교회언약사상으로 새롭게 수립하였다. 따라서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인식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웠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헨리 제이콥을 위시하여 존 코튼, 존 윈스롭 등의 작품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대륙을 향해 항해하였던 이들은 선실 속에서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하나 됨이라는 언약(사회적 언약)을 체결하여 선포함으로써, 하나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시작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언약의 특징은 신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회언약 공동체를 돌보고 섬기며 모든 슬픔과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고자 노력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언약 사상은 "신적 공동체의 마르나 카르타와 메이플라워 협정"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뉴 잉글랜드, 청교도, 사회적 언약, 교회 언약, 개인언약, 사회적 책임성

1. 서론: 언약신학 – 청교도 사회공동체의 대전제

개신교 가운데 특히 개혁교회(Reformed Church)는 교회의 정체성(Identity)을 논할 때 항상 대사회적 책임론을 상당히 부정적 시각으로 인식해왔다. 개신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을 언급하는 일은 마치 행위구원과 신자의 공덕사상을 신학적 준거점으로 강조하였던 로마 카톨릭 신학의 입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잘못 오해되었다. 그 결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신교 특히 개혁교회의 대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

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구체화된 개혁주의 원리는 청교도주의(Puritanism) 신학사상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청교도들의 윤리사상 및 사회공동체 사상의 근원적 배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신학(Covenant Theology)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형성되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교도들이 사회적 책임론을 주장한 배경에는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있다. 구원을 확고하게 보장받는 수단으로서 선행을 강조한 로마 가톨릭과 달리, 청교도들은 중생을 이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여해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헌신적인 삶을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해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부여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책임성을 갖게 되었다. 청교도들이 이해한 진정한 경건과 영성은 사회를 향한 선행적이고도 도덕적 행위를 동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건성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 결코 공로 또는 공덕의 산물로 간주하지 않았다.

주지하는 바처럼, 교회와 사회는 불가분리성의 원칙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성을 상실한 기독교 교회론은 인간 사회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약자를 위로하며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교회 공동체의 사회성을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는 항상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 사회를 개혁시키고 변혁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와 같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은 교회 존재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처럼 장로교제도의 효시였던 청교도들의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회와 사회의 관계성 그리고 대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해석학적 접근법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사회적 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급한 중요 과제인 것이다.

청교도의 사회적 책임론에 배경이 되는 언약이론(Covenant Theory)은 뉴잉글랜드를 형성하는 데 가장 중추적인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1] 쯔빙글리

---

1 David A.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75.

(Zwingli, 1484~1531)를 비롯하여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 1534~1583), 콕케이우스(Johnnes Coccejus, 1603-69) 그리고 불링거(Johann Heinrich Bullinger, 1504~1575) 와 칼빈(John Calvin, 1509~1564)으로 전개된 언약사상은 청교도 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발전된 언약이론으로 정착되었다. 인간의 대표자 아담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사상은 개혁신학의 언약이론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사상으로 일관되어 왔음을 주지한 청교도들은 잉글랜드를 비롯한 뉴잉글랜드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관계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코자 언약이론을 전개하였다.

잉글랜드에 주도적으로 언약신학을 도입한 인물은 윌리암 틴데일(William Tyndale, 1492~1536)이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이 체결한 언약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이해하였다.[2] 틴데일은 이 언약이론에 근거하여 잉글랜드의 앙글리칸 교회를 비롯한 당시 사회와 국가를 향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해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선포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고 있으며, 은혜를 입은 신자는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실천해가는 것이 신자의 의무임을 강조하였다.[3] 틴데일은 비록 언약 이행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과 의

---

2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진 언약들을 찾도록 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과 명령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자비들 말이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약속들은 언약을 포함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에만 자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이 옳고 선하다고 동의하며, 즐거이 그것을 행하며 그리고 때로 부족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어기고 또한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지키지 못함으로 통곡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것이다." William Tyndale, "Prologues by William Tyndale shewing the Use of the Scripture, which He Wrote Before the Five Books of Moses," in *Doctrinal Treatises and Introduction to Different Portions of the Holy Scripture*, (ed.), Henry Walter (Cambridge: Parker Society, 1848), 403, quoted in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1.

3 이러한 틴데일의 언약사상에 대하여 일부 청교도 학자들 가운데 데이빗 낙스(David Knox)는 틴데일이 개혁주의적인 속죄론(doctrine of the atonement)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마치 틴데일이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설명함에 있어 신자의 칭의는 믿음과 행함(by faith and works)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고 비평하였다. 그러나 젠 몰러(Jens Moller)는 틴데일이 언약신학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의 중요성에 강조점을 더 두었다고 주장하였고, 레오나르드 트린테루드(Leonard H. Trinterud) 역시 틴데일이 성경을 해

무를 주장하였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격이 쌍무적인 언약(Bilateral or Mutual Covenant)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방적인 언약(Unilateral Covenant)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이행은 신자의 믿음과 순종을 통한 윤리적인 의무가 내포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앙글리칸적인 잉글랜드 교회의 중도개혁적인(Semi-Reformed) 현상을 발견하고 참된 신앙과 경건의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신학적 배경은 언약신학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청교도 언약사상은 1538년 존 베일(John Bale) 그리고 1548년 존 후퍼(John Hooper)에 의해서 잉글랜드에 널리 전개되었으며, 1585년 더들리 페너(Duddley Fenner)와 장로교주의 주창자인 토마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92년에는 윌리암 퍼킨스(William Perkins)[4]에 의해 발전되었고, 17세기에는 리처드 십스(Richard Sibbes),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존 다우네임(John Downame)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잉글랜드 교회 및 사회와 국가의 개혁의 이론적 배경인 된 언약사상은 뉴잉글랜드의 개척자들인 존 카튼(John Cotton)을 비롯하여 1630년 뉴잉글랜드의 초기 인물이었던 존 윈드롭(John Winthrop)을 위시하여 존 윌슨(John Wilson), 토마스 후커(Thomas Hooker), 피터 벌클리(Peter Bulkeley), 그리고 토마스 쉐퍼드(Thomas Shepard) 등에 의해 뉴잉글랜드에 정착되었다.

필자는 본 논고를 통해 일부 청교도 연구가들의 주장들은－청교도들은 사회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부정적이며 무반응적이었다－청교도의 정체성에 대한 불명확하고도 왜곡된 이해에서 비롯된 결과에 기인하고 있었다는 점을 당대 사료들에 대한 분석작업을 통해 살펴볼 것이며, 이 청교도 언약사상은 이들이 추구하였던 대사회적 책임활동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

석하는 열쇠로서의 언약을 강조하였으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신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지켜야 함을 주장하였다고 이해하였다. David B. Knox, *The Doctrine of Faith in the Reign of Henry VIII* (UK: London, 1961), 19-21; Jens Moller, "The Beginnings of Puritan Covenant Theology," *The Journal of ecclesiastical history*, XIV (1963): 51-52; Leonard H. Trinterud, "The Origins of Puritanism," *Church History* 20 (1951): 39. 더 자세한 자료는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23, 각주 18번 참조할 것.

4 윌리암 퍼킨스는 청교도 운동의 아버지로 불리우며 1592년에 *Golden Chaine*(금사슬)이라는 저술을 출간하여 언약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는 개인경건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되었다.

하는 열쇠가 되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고는 청교도언약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었던 창조질서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청교도들이 소유하였던 개인언약 사상과 교회언약 사상 그리고 사회언약 사상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는 17세기 당시 뉴잉글랜드에서 활동하였던 개인과 교회 그리고 사회적 환경 및 활동 등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1.1. 청교도 사회성-창조 질서 원리(The Order of Creation)의 파기 및 회복

잉글랜드 앙글리칸의 폭정과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신앙적 자유와 감격에 찬 예배의 회복을 주장하였던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에 새로운 영역의 보금자리를 마련함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친교 그리고 삶의 회복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1620년 메이플라워(Mayflower)호에 승선하여 매사추세츠 남동부에 위치한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청교도들과 1630년 아벨라(Arbella)호를 타고 보스턴(Boston)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유일한 희망과 목적은 이곳에 '경건한 신앙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었다.[5]

이러한 신앙공동체 설립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당시 청교도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원리를 그 땅 위에 정착하는 일이었다. 이들이 잉글랜드에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이러한 창조질서(the order of creation) 원리를[6] 잉글랜드에 구축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과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앙글리칸의 신학사상이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 목회자들은[7] 창조질서의 최우선적 법칙으로서 하나

---

5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앙글리칸 교회는 피의 여왕 메리를 비롯하여 엘리자베드, 제임스 1세, 찰스 1세, 제임스 2세 등으로 이어지면서 앙글리칸적인 교회정치를 비롯한 예배의식, 절차 및 형식적인 예전 중심의 교회체제를 강요하였다.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로의 회귀를 부르짖으며 성경중심주의적인 교회정치 및 예배를 부르짖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와 함께 하나님의 복의 근원지로서의 '신앙공동체'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6 William Ames, *The Marrow of Sacred Divinity* (UK: London, 1643), 1-39.

7 이하 '청교도들'로 지칭함.

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즉,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따라서 생물 또는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돌, 구름, 풀, 짐승, 사람, 천사, 심지어 모든 악마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분의 섭리를 이루도록 창조된 것이다. 모양이나 실체는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섬기도록 존재하는 것이다.[8] 피조물들을 다양한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목적을 청교도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였다: 첫째, 모든 피조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상호적으로 섬기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9]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사람들 상호간에 사랑과 베풂을 나누도록 명하신 것이다.[10]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입은 사람(Being made after Him)은 직접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시키는 존재로 세움을 입었다.[11]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에 대한 대표적 책임을 부여받은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사건은 창조질서 원리의 혼란(topsy-turvy)을 조성하였다.[12] 결국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

---

8 William Hubbard, *The Happiness of a People in the Wisdoms of their Rulers* (Boston, 1676), 8. 허바드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되 '혼돈의 무리'(heap of confusion)로 창조하셨음을 강조하였다.

9 Samuel Willard, *A Complete Body of Divinity* (Boston, 1736), 124.

10 Urian Oakes, *A Seasonable Discourse wherein Sincerity and Delight in the Service of God is earnestly pressed upon Professors of Religion* (Cambridge, 1682), 27.

11 Thomas Shepard, *Works*, (ed.) John Albro (Boston, 1853), III. 25: "For although all inferior creatures are made lastly for God, yet they are made nextly for man; but man, having nothing better than himself, between him and God, is therefore made both lastly and nextly for God; and hence it is that no inferior creature, which comes out and issueth from God, hath such a reflex and return again back unto God, as man hath; because, in and by this reflex and return into him, man's mortal being is eternally preserved, like water running into the sea again, from whence it first came."(sic)

12 토마스 태쳐는 그의 보스톤 설교에서 타락의 심각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The whole Creation groaneth to be delivered from its subjection to vanity", Thomas Thatcher, *Boston Sermons* (May 12, 1678).

는 결과를 창출하게 되었고, 이 죄악은 창조질서의 전도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죄의 현상에 대하여 청교도 학자인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범죄는 암이나 문둥병같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그의 대리인들에게 전가되는 상태"라고 지적하였다.[13] 청교도 사무엘 윌라드는 올드 사우스 교회(Old South Church)에서 행한 설교에서 이르길, "죄의 본질은 무질서인지라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 자신이 아닌 인간의 목적으로 대치해버렸다"[14] 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청교도들은 '언약의 공동체'를 신대륙에 건설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현주소인 이 세상이 '철저하게 타락한 도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창조질서의 파괴의 주범인 인간 타락의 심각성은 심지어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깊이 배어 있었다.[15] 나다니엘 구킨(Nathaniel Gookin)은 죄를 "순종의 결여 또는 인간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위반"으로 정의했으며, 카튼 매더(Cotton Mather)는 "죄의 본질적 요소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을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복(Felicity)과 기쁨(Fruition)으로부터 이탈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6] 죄악의 파괴적인 본능에

---

13 Perry Miller,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2d ed. (Cambridge, 1954), 400-401.

14 Samuel Willard, *Boston Sermon*, July 6, 1679. "인간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가장 중요한 질서상의 위치에서 벗어나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온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섬김과 인간들에게 순종함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Man was the mean betwixt God and the Creature to convey all good with all constancy of it, and therefore when Man breaks, Heaven and Earth breaks all asunder, the Conduit being cracked and displaced there be no conveyance from the Fountain." Thomas Hooker,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London, 1659), 59.

15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Religion and Life in Seventeenth-Century Massachusetts* (Baker Book House, 1990), 49.

16 Nathaniel Gookin, *Sermon* [1687], *Sermon Notes* [1687] (Harvard University MS), 118, 5; Cotton Mather, *Pillars of Salt* (Boston, 1699), 10. 잉크리즈 매더에 의하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는 율법의 위반 … 죄는 주님에 대한 반역이다 … 죄는 지혜의 법으로부터 이탈이다." 그리고 토마스 윌라드는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이다"라고 주장하였으며, 사무엘 윌라드에게 있어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식하였다. 나다니엘 구킨은 죄가 다양한 등급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사무엘 윌라드는 죄의 등급론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토마스 쉐퍼드는 가장 작은 죄에도 가장 큰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스려 행해진 악의와 위해가 존재하므로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죄는 누가 범했든지 간에 마땅히 죽음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Increase Mather,

의하여 인간 세계는 공동체 상호간을 비롯하여 교회 내의 성도들과 사회와 국가 전체의 불신과 다툼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1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치유책을 제시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는 무서운 죄의 세력과 능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며, 왜곡된 창조질서는 회복하게 되었다.

> 만일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분 이외 어떤 것을 향하는 영혼의 혐오 또는 거부라고 한다면 … 은혜의 역사 안에는 다시 그 영혼이 하나님 즉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선하고 최고인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회심이 있다.[18]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죄악의 문제는 성경적인 언약 공동체 사회를 형성해감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장해물이었는데, 바로 이 장해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제거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죄악은 창조질서의 위반(Violation)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전가된 은혜는 창조질서의 회복(Restoration)을 의미하였다.[19]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창조질

The Folly of Sinning (Boston, 1699), 13-15; *A Sermon Wherein is Shewed that Excess in Wickedness doth bring Untimely Death* (Boston, 1685), 19; *Solemn Advice to Young Men* (Boston, 1695), 74; Thomas Shepard, *Sound Believer: A Treatise of Evangelical Conversion・Discovering the Work of Christs Spirit, in Reconciling of a Sinner to God*, 1659, 48; Samuel Willard, *Impenitent Sinners, Warned of Their Misery and Summoned to Judgment*, 1698, 4; Gookin, *Sermon* of Aug. 1687, *Sermon Notes*, 1687, 140, 142; Samuel Willard, *A Remedy against Despair* (Boston, 1700), 9; Thomas Shepard, *Three Valuable Pieces* (Boston, 1747), 14.

17 Allen Card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Religion and Life in Seventeenth-Century Massachusetts*, 57. Cf. Increase Mather, *The Times of Men are in the Hand of God* (Boston, 1675), 4; *Greatest Sinners*, 66-67; *Solemn Advice*, 33; Joshua Moodey, *An Exhortation to a Condemned Malefactor* (Boston, 1686), 64; Cotton Mather, *Warnings from the Dead*, 4.

18 Richard Mather, *Farewell Exhortation* (Cambridge, 1677), 20. Cf. Thomas Hooker, *Application of Redemption*, 673: "There must be an Aversion and turning from th Creature, before there can be a conversion unto God; he came from God to the Creature, he must return from the Creature to God: but his aversion is first, that is, from his abusive cleaving to the Creature; for in truth, sin is nothing else but an inordinate affecting of these inferior things."

19 Edmund S. Morgan, *The Puritan Family: Religion & Domestic Relations in Seventeenth*

서 회복사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즉 신적 공동체 실현에 대한 확실성을 부여해주는 사건이었다. 따라서 당시 청교도 목회자들의 설교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모든 사람들 영혼의 궁극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적이 것에 불과하기에 성도들의 영혼 자체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 곳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힘주어 강조하였다.[20]

정리하자면, 청교도들은 언약신학에 근거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코자 하였지만 아담의 타락사건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죄의 노예가 됨으로서 인간관계를 비롯한 피조물 세계의 파괴가 발생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값을 속량하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전가되어 창조질서의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적 기반을 주축으로 청교도들은 언약신학 중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이라는 이중적 언약론을 통하여 청교도 사회에 진정한 언약공동체, 신적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럼 뉴잉글랜드에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언약사상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2. 개인언약사상-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잉글랜드의 언약사상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이자 해설자(Author and Interpreter)로 잘 알려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의 언약사상 즉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옛 언약(Old Covenant)과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세상 종말의 날까지

Century New England, new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Harper & Row, New York, 1966), 15.

20 Thomas Thatcher, *Boston Sermons* (July 6, 1679); (July 6, 1672); Jonathan Mitchell, manuscript, *Sermons from Psalms,* 65a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John Cotton, *Briefe Exposition upon Ecclesiastes,* 29; Thomas Hooker, *A Comment upon Christ's Last Prayer* (London, 1650), 525.

의 새 언약(New Covenant)으로 대별된다. 1584~1590년 사이에 등장한 피터 라무스(Peter Ramus)의 이분론적 논리의 영향을 받은 잉글랜드의 더들리 페너(Dudley Fenner, 1558~1587)는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그는 창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언약의 시작으로 이해하였다.[21] 청교도 윌리암 퍼킨스는 행위언약을 다음과 같이 율법적 기능으로 주장하였다:

> 행위언약이란 완전 순종을 조건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언약이며, 이는 도덕법으로 표현된다.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 가운데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말씀의 일부분이며, 이에 반하는 모든 것을 금한다(롬 10:5; 딤전 1:5; 눅 16:27; 롬 7:14). 이 율법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법령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순종과 결합된 조건으로 되어 있다. 그 조건은 율법을 성취함으로써 영생이 주어지지만, 율법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축소판이며 행위언약이다.[22]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의 건설의 정신적 지주였던 언약론을 외적언약(the external covenant)인 행위언약과 내적 언약(the internal covenant)인 은혜언약으로 구분하였다. 본질적으로 초기 뉴잉글랜드 마을과 교회와 가정에 매우 실제적인 적용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외적언약인 행위언약이었다. 즉, 당대 공동체와 관련된 언약은 엄격한 외적인 행위의 언약이었다. 이들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입각한 바른 행동들이 실행된다면 축복 내지는 적어도 처벌은 없을 것으로 이해하였다. 청교도들에게

---

21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33. 페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입각한 일방적인 언약인 은혜언약의 효용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율법에 대한 조건적 순종을 강조하는 행위언약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Cf. Michael McGiffert, "Grace and Works: The Rise and Division of Covenant Divinity in Elizabethan Puritanism," *Harvard Theological Review* 75 (1982): 476-477; "From Moses to Adam: The Making of Covenant of Works," *Sixteenth Century Journal,* 19/2: 131-55; John von Rohr,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Atlanta: Scholars Press, 1986), 28-29.

22 William Perkins, "Golden Chaine," in *The Works*, I, 32.

있어서 행위언약은 인간에게 구원의 방법으로는 사용될 수 없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자들에게는 새로운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이다.

청교도들은 타락하여 행위언약을 파기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인간들에게 완전하고도 새로운 은혜언약,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위가 아닌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언약을 제정하셨음을 강조하였다. 존 카튼은 은혜언약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 그러므로 이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법령(Appointment)이다. 이 법령이 언약이 되기 위하여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피조물의 어떠한 동의나 찬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맺어진 하나의 언약에 인간 편의 필수적인 동의나 찬성을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2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을 인간에게 값없이 약속하시고, 인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은혜언약이 체결되는 것이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의 유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쌍무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총의 산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구분법은 리처드 십스와 존 프레스톤 그리고 존 다우네임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뉴잉글랜드의 정신적 주체였던 존 카튼의 언약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존 카튼은 청교도 사회를 두 가지 부류로 이해하였다. 첫째는 진정한

---

23 William Perkins, "Golden Chaine," *The Works*, I.71. John Cotton, *The Grounds and Ends of the Baptisme of the Children of the Faithfull* (London, 1647), 108. 언약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과 무능력함으로 인하여 언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음에 대하여 존 카튼은 매우 강조하였다. John Cotton, *The New Covenant, or, A teatise unfolding the order and manner of the giving and receiving of the covenant of grace to the elect: as also, she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ist and the ture Christian: being the substance of sundry sermons* (London: Printed by M.S. for Francis Eglesfield & John Allen, 1654), 181-83.

언약자로서 은혜언약 세계에 들어온 회심자들이며, 이들을 내적 집단(Inner Group)으로 지칭하였다. 이들은 영국국교회의 의식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자들로 구성되었다. 둘째는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청교도 구성원들로서 은혜언약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써, 이들을 외적 집단(Outer Group)으로 구별하였다.[24] 카튼은 청교도 구성원들 모두가 은혜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서 진정한 신적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3. 교회언약(The Church Covenant)사상 -은혜언약의 연장

뉴잉글랜드 공동체의 심장부는 다름 아닌 교회자체였다. 비록 뉴잉글랜드 청교도 모두가 새로운 방식에 동의하지 않았을 지라도 청교도 지도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동체원들은 자신들의 교회공동체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25] 이러한 청교도들은 개인언약 사상 즉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을 발전시켜 교회언약 사상을 확립하였다. 이 교회언약 사상은 잉글랜드 청교도들 가운데 장로교주의(Presbyterianism)를 추구하는 자들을 위시하여, 당시 앙글리칸 교회정치체제에 더 이상 합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청교도들을 통하여 진행되었다.[26] 분리주의자들과 비슷한 교회관을 형성한 독립

---

24 Lazar Ziff, *The Career of John Cotton: Puritan and the American Experienc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49.

25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137.

26 당시 장로교파 청교도들은 교회의 순수성에 대하여 가시적 교회(Visible Church)는 완전할 수 없으며 가시적 교회 내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 세상의 교회는 참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교회형태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분리주의자들과 독립파 교도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가시적 교회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는 큰 의미가 없고 진정 회심한 자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회심한 자들만으로 구성된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교회언약"을 수립하였다. 버레지(Champlin Burrage)에 의하면, 교회언약사상은 1560년 이후 재세례파(Anabaptists)와 스코틀랜드 언약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스코틀란드 사람들은 1581년 교회언약에 서명하였다가 1638년 찰스 1세(Charles I)와 윌리암 로드(William Laud)의 정책에 대항하여 이 교회언약을 갱신하였다. 그 후 1643년 찰스 군대에 대항하여 의회군을 원조하는 조건으로 잉글랜드 의회는 "엄숙동맹 및 언약"(Solemn

파(Independents)는 분리주의자들과 함께 회중교회주의(Congregationalism)를 지향하였다. 그러나 잉글랜드 앙글리칸 교회는 분리주의자들과 독립파들의 회중주의정치를 거부하였고 탄압을 행사함으로 인하여, 이들 중 일부는 잉글랜드를 떠나 네덜란드와 뉴잉글랜드로 이주하게 되었다.

분리주의자들의 대부였던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e)은 1581년 영국 최초 분리주의자들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교회를 설립함과 동시에 "교회언약"을 채택하였다. 그가 작성한 교회언약의 내용을 보면, 첫째, 이들은 한 무리로 연합하여 주님께 자신을 헌신하며 주님의 율법과 통치를 지키고,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무질서와 악을 금한다. 둘째,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입장에 있는 교회 지도자 또는 목회자들이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며 그들에게 순종한다. 셋째, 예배모범으로서, 교회 내에서 질서 가운데 기도, 성경봉독, 권면, 위로 등을 할 것이며, 이것은 어느 누가 해도 좋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하여 구분된 사람들이 맡아서 해도 좋다는 주장이다. 넷째,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든지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다섯째, 교회의 모든 일에 질서 있고 거룩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었다.[27] 이러한 브라운의 교회개념은 장로교주의에 대한 적극 옹호자였던 존 필드(John Field)의 교회관에서 상당한 발전시킨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브라운주의자들의 교회언약 개념은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은혜언약을 근거로 출발하고 있으며, 신자의 언약에 대한 조건성(Conditionality)과 자발성(Voluntarism)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28] 즉 교회란 은혜언약 안에

League and Covenant)을 선언하였다. Cf. Champlin Burrage, *The Church Covenant Idea: Its Origin and Its Development*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4);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146.

27 Robert Browne, *A Trve and Short Declaration, both of the Gathering and ioyning together of Certaine Persons: and slo of the Lamentable Breach and Division which fell amongst them*, 19-20; Champlin Burrage, *The Church Covenant Idea: Its Origin and Its Development,* 46-48,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141-42에서 재인용.

28 Perry Miller & Thomas H. Johnson, eds., *The Puritans A Sourcebook of Their Writings* vol. I, 188.

있는 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교회언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즉 은혜언약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개인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임에 반하여, 교회언약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의미한다. 분리주의자들의 회중교회 정치의 지도자로서 새롭게 부각된 프란시스 존슨(Francis Johnson)은 1591년 미들버그 교회에서 '교회언약'을 제정하여 집행하였다. 이 언약서에 의하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먼저 명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에 직분들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연합하며 서로를 돌보고, 예수께서 당신의 교회를 돌보라고 명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때에 순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슨은 이 교회언약에 서약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하였고,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 신자들은 본 교회와 같은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교회로 옮겨갈 수 없음을 천명하였다.[29]

교회언약사상을 뉴잉글랜드에 적용시켰던 청교도들을 산출한 독립파의 창시자 헨리 제이콥(Henry Jacob)의 교회관은 다음과 같다: 교회란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영적 공동체를 만들고 대개 한 장소에 모이며, 이 모임(교회)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고, 교회정치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예식(구원의 방식, 즉 성례)을 자체 내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위를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30] 청교도들이 플리머스(Plymouth)에 정착한 이래 9년 후에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초기에 스켈톤(Skelton)이

---

29 Champlin Burrage, *The Church Covenant Idea: Its Origin and Its Development,* 50.

30 Henry Jacob, *The Divine Begining and Institution of Christs true Visible or Ministeriall Church* (Leydon, 1610), Edmund S. Morgan,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29. 이에 대하여 존 카튼의 교회관은 다음과 같다: "교회는 신비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구성원들은 성도들로서, 이들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언약을 통해 한 회중으로 함께 연합하여 모든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따라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곳이다." John Cotton, *The Doctrine of the Church to which are Committed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erein is Demonstrated by Way of Question and Answere what a Visible church i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Gospel* … (London: Printed for Ben. Allen & Sam. Satterthwaite, 1643), 1.

부임목사로 임명되었고, 힝긴슨(Francis Higginson)이 교사로 임명되었는데, 힝긴슨은 스크루비(Scrooby)교회에서 성경에 입각한 신앙고백문과 아울러 '교회언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서로가 하나 되며 하나로 연합되기로 언약하며, 주님의 진리의 축복된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심에 따라 모든 그분의 방식 안에 함께 동행하기로 언약한다."[31] 존 카튼은 잉글랜드를 떠나 뉴잉글랜드로 가기 직전 보스턴 링컨샤이어에서 영국교회를 섬기고 있던 당시 회중과 교회언약을 체결하였다.

17세기 초 잉글랜드 돌체스터(Dorchester)에서 영적 공동체를 구성하였던 존 화이트(John White)는 열 가지 영적 서약이라는 교회 언약서를 제정하였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거행하는 주일 전날 저녁 시간에 교회 회중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임무를 설명하고 이 열 가지 서약서(Ten Vows)를 읽어주었으며 이것에 대한 동의와 서약의 의미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 언약은 약한 손을 세워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엄숙한 서약과 언약(A Solemn Vow, and Covenant)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강화시키려는 약인(約因)이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들을 수행토록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 첫째, 우리는 능력의 최정점 또는 새로운 제도 또는 부패된 방식 등

---

31 William Bradford, *History of Plymouth Plantation*, 265, cited in James Gregory, *Puritanism in the Old World and in the New From its Inception in the Reign of Elizabeth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uritan Theocracy in New England - A Historical Handboo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6), 254. 그레고리가 제시한 두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면 당시 부임목사였던 스켈톤보다 오히려 교사로서 활동하였던 힝긴슨의 활동영역과 교회와 사회의 영향력이 지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David Weir는 이 교회언약이 1603년 스크루비 교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1629년 Massachusetts Bay의 살렘에 있는 "제일 교회"(First Church)에서 행해진 언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We covenant with the Lord and one with an other; and doe bynde ourselves in the presence of God, to walke together in all his waives, according as he is pleased to reveale himself unto in his blessed word of truth." C. H. Webber and W. S. Nevins, *Old Naumkeag: An Historical Sketch of the City of Salem* … (Salem, First Church, Records of the First Church in Charlestown, Massachusetts, 1877), 14, cited in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410ff.

> 에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대로 참 예배를 드린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읽기, 청취, 묵상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셋째, 자녀들과 가족들을 공적 훈련과 관찰하는 방식에 근거한 교리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다. 넷째, 매일 자신의 삶의 방법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들을 엄하게 다루며, 자주 우리의 실패를 밝혀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한다. 다섯째, 형제의 권면에 순응하며, 그리스도인의 평화를 깨뜨리는 중상, 다툼 등을 피하고 순전하게 타인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수행해간다. 여섯째, 형제간에 차이점이 있을 때에는 속히 화합하도록 함으로서 그 논쟁점이 잘 의논되도록 노력한다. 일곱째, 세상적인 문제로 마음이 막혀 있거나 흥정에 눌리는 것들을 참아내며,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수치스러운 것으로 판명 날 세상의 이득의 방식을 피하도록 한다. 여덟째,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회 예배 시에 몸과 재산을 드림으로써 안과 밖으로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노력한다. 아홉째, 곤경에 빠져 있거나 마음에 상처 받은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우 효과적으로 빈번하게 기억해주고, 음식과 옷가지들을 나누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감당한다. 열째, 이미 언약한 내용들을 잘 지키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에 대한 주의 깊은 점검이 분발하도록 한다.[32]

존 화이트의 열 가지 서약서는 뉴잉글랜드의 사회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역을 감당하였던 독립파 청교도들에 의해서 교회언약서로 활용되었다.

1628년 존 엔드콧(John Endecott)의 영도 하에 신대륙 살렘지역(Salem)에 도착한 순례자들은 1629년 살렘교회를 세우고 "살렘교회언약서"를 작성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에 입각하여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하였다: "1629년 살렘언약서: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주님과 우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언약을 체결한다. 우리에게 자

---

32 John White, "The Ten Vows," in *John White: the Patriarch of Dorchester [Dorset] and the Founder of Massachusetts 1575-1648 with an Account of the Early Settlement in Massachusetts 1620-1630,* by Frances Rose-Troup (New York: G.P. Putnam's Sons, 1930), 418-22.

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 진리의 축복된 말씀에 의거하여 그 분의 방식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기로 서약한다."[33]

1633년 잉글랜드 로터담 교회(Rotherdame Church)에 부임하였던 독립파 목회자였던 휴 피터(Hugh Peter)는 앞서 제시한 존 화이트의 열 가지 서약서를 수정 증보하여 교회 언약서로 활용하되, 회중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언약서에 서명토록 하였다. 이를 거부할 시, 성찬 참여를 금하였기 때문에 일부 성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그 조항은 11가지로 요약된다:

> 로터담 영국 교회 언약서: 무질서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처절하게 오랫동안 경험하며 여기에 이름을 기록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언약을 체결한다: 첫째, 세례로 우리의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단언한다. 둘째, 우리는 잘못된 모든 방법들에 반대하여 하나님께 참되고 순결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한다. 셋째,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죄에 빠지도록 허락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되, 이를 통해 곧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한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께 찬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에 속한 모든 분야에 순종과 규제로 행하기를 결의한다. 다섯째, 우리는 말씀청취, 말씀읽기, 기도, 묵상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은혜 안에서 더욱 성숙하도록 열심히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는 모든 거룩한 의무를 헛되게 만드는 것들과 같은 세상 염려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여러 계명과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계획하지 않는다. 일곱째, 우리는 기꺼이 순종적으로 주저함없이 교회 규율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일에 있어서도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사랑스럽게, 지혜롭게 계속적으로 수행해간다. 여덟째,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널리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노력을 다한다 … 열째, 우리는 형제들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악한 말과 다른 방법을 통하여 경솔하게 무례하게 하는 것을 삼가도록 노력한

---

33 Willi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is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3), 116; 원종천, 『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171에서 재인용.

> 다. 열한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술 취함이나 욕을 하는 등과 같은 공개적이고도 중상모략적인 죄뿐만 아니라 악한 동료들과 우리의 최고의 능력에까지 미치는 악의 모습에 대하여 대항한다.[34]

이러한 교회언약사상을 이 땅위에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였던 당시 일부 분리주의자들과 독립파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630년대에는 이러한 신앙관과 교회관을 가진 청교도들이 대거 몰려들게 되었다. 이들은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자마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교회언약을 채택하여 회중중심 교회제도를 실현해가고자 하였다.

1630년 약 천 명의 독립파 청교도들을 이끌고 뉴잉글랜드 신대륙에 도착한 독립파의 존 윈드롭(John Winthrop)은 곧 바로 구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이곳에 '신적 언약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시도하였다. 1630년 일단의 청교도들을 이끌고 대서양을 횡단한 윈드롭은 1632년 11월 2일 금요일, 매사추세츠 베이 찰스타운의 "제일교회"(First Church)에 모여서 '교회언약'을 청중들과 체결하였다: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과 법령 또는 신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분의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섭리에 의해 함께 모이게 되었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 자신들을 한 회중 또는 교회 속으로 연합하기를 희구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구원시키며 성화케 하셔서 이와 같이 된 우리 모두는 엄숙하고도 경건하게 주님의 가장 거룩하신 현존 앞에서 복음의 법칙에 따라 행할 것을 언약하며, 주님의 거룩한 법령들에 따라 진심으로 순응하며, 서로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기로 서약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하나님은 더욱 밀접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35]

---

34 William Rathband, ed., *A Bridfe Narration of Some Church Courses*, etc. (UK: London, 1644), 17-18, cited by Burrage, *The Church Covenant Idea*, 83-84.

35 Charlestown (Boston), MA, *First Church, Records of the First Church in Charlestown, Massachusetts*, 7. 1630년 7월 30일 윈드롭과 함께 동행하였던 다른 무리들은 워터타운(Watertown)에 정착하여 다음과 같은 교회언약을 체결하였다: "The Watertown Covenant of July

1636년 휴 피터는 뉴잉글랜드 살렘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그가 잉글랜드 로터담 교회에서 행하였던 '교회언약'을 더욱 확대하여 '살렘교회언약서'를 작성하여 실행하였다:

>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 둘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셋째,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넷째, 사적이나 공적으로 교회에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삼간다. 다섯째, 교회에서 자신을 잘난 체하지 말고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오히려 잘 돌본다. 여섯째,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교회 안팎으로 진실과 평화를 유지한다. 일곱째, 교회와 정부의 권위에 순종한다. 여덟째,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소명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한다. 아홉째, 자녀들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지식과 뜻으로 가르쳐서 주님을 잘 섬기도록 한다.[3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언약의 서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언약의 중심 사상 속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표현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인 공동체 교회의 주요한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교회언약사상은 로만 카톨릭과 앙글리칸 예배와 생활 가운데 간과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주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현존하

---

30 … we do all … solemnly and with all our Hearts, personally, man by Man for our selves and ours (… That they keep the Promise unblameably and faithfully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promise, and enter into a Covenant with the Lord our God, and before him with one another, by Oath and serious protestation made, to Renounce all Idolatry and Superstition, Will-Worship, all Humane Traditions and Inventions whatsoever, in the Worship of God; and forsaking all Evil Ways, do give ourselves wholly unto the Lord Jesus, to do him faithful Service, observing and keeping all his Statues, Commands, and Ordinances, in all Matters concerning our Reformation; his Worship, Administration, Ministry, and Government; and in the Carriage of our selves among our selves and one towards another, as he hath prescribed in his Holy Word …" Text form Cotton Mather, *Magnalia Christi Americana, or,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New-England, from its first planting in the year 1620*; unto the year of our Lord, 1698: in seven book (London: T. Parkhurst, 1702), Bk. III., 83.

36 Willston Walker,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3), 116-18.

심을 철저하게 담지하고 있었다.[37] 게다가 대부분의 교회언약 속에는 단순히 교회 생활 내규를 제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언약 공동체 사회의 필연성과 연합원리 그리고 상호 간의 봉사, 섬김, 헌신적 태도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있다. 청교도들은 진정한 사랑의 이중적 구조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 특히 청교도들은 하나님 사랑의 대사회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이웃사랑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권과 의무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적 선물의 결과임을 이들은 간과하지 않았다.[38]

뉴잉글랜드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이상적인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자 정착과 더불어 개인언약 및 교회언약을 체결하여 구약시대에 펼쳐졌던 언약공동체를 이룩하고자 노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들의 통치자이자 주인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고, 공동체원들은 주의 말씀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 맺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됨의 위상과 본질을 정립하여 평화와 거룩과 교제와 감사로 채워진 사회 공동체를 구현코자 노력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잉글랜드의 앙글리칸적인 예배형식과 절차 가운데 진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회언약을 통하여 가장 성경적이고도 초대교회적 회귀적인 풍성한 예배행위 가운데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

37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151.

38 Cf. Mary McManus Ramsbottom, "Religious Society and the Family in Charlestown, Massachusetts, 1630 to 1740," cited in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152.

4. 사회언약사상-청교도 공동체의 사회성

뉴잉글랜드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메이플라워(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을 항해하였던 102명의 필그림들(Pilgrims)이 1620년 8월 5일 대항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선실에 탑승하자마자, 존 로빈슨(John Robinson)은 떠나기 직전 '마지막 편지'(A Farewell Letter)를 낭송하였다. 이 편지에는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항해 중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 하시길 기원하였고, 함께 동승한 목사가 그들을 목자처럼 대할 것이며,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 평화 가운데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승선한 모두가 함께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선언하였다.[39]

또한 이들은 항해 도중 1620년 11월 11일 선실에서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Mayflower 엄숙동맹 및 언약"을 체결하였다:

> 하나님 이름으로 아멘. 여기에 서명을 한 우리는 경외하는 제임스 왕의 충성스런 신하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증진과 우리의 왕과 국가의 영예를 위하여 그리고 버지니아(Virginia) 북부의 첫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항해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같이 상호 합의하에 엄숙하게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에 언약을 체결하노라. 이 언약은 앞서 제기한 목적을 촉진시키며 정치적으로 우리의 보다 나은 질서와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하나의 시민 공동체로 계약하며 언약하노라. 이 언약을 통하여 때때로 식민지 전반에 걸쳐 일반적 선을 구현하는데 가장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 직무와 헌법, 법령, 조례 등 정당하고 동등한 법률의 구조를 제정하고자 하노라. 바로 이러한 사안들을 위하여 우리는 정중하고도 순종적으로 언약하노라.[40]

---

39 William Bradford, *Bradford's History of the Plymouth Plantation, 1620-47* (1968), 51. 특히 이 편지의 내용을 보려면 367-71을 참조할 것.

40 J. Gregory, *Puritanism in the Old World and in the New From its Inception in the Reign of Elizabeth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uritan Theocracy in New England - A Historical Handbook,* 238. 그레고리는 이 사회언약서에 제기된 잉글랜드 국왕에 대한 충성을 묘사한 부분은 자기 자

위에 제시된 마지막 편지와 사회 언약서에 나타난 특징은 신대륙을 향한 청교도들의 대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자세가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신대륙은 하나의 식민지를 개척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사회는 개인언약을 체결하고 교회적 언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시민 공동체가 '신적 사회'를 구성하고 형성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맺어진 언약 가운데 행위언약과는 성격이 다른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반면에, 사회언약은 그 특성상 쌍무적 언약(Mutual Covenant)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41] 비록 개인언약, 교회언약, 그리고 사회언약은 기본적으로 언약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순종(Voluntary Obedience)에 입각한 언약체결을 추구하였지만, 이 언약 가운데 사회언약은 언약의 성격상 쌍무적인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약속이었다.[42]

만물들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도록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상호

신들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큰 부담으로 안게 되었음을 피력하였다. 오히려 이들이 이 언약서에서 국왕에 대한 충성묘사가 배제되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Cf. New Plymouth Colony, *The Compact with the Charter and Laws of the Colony of New Plymouth* …; George E. Bowman, *The Mayflower Compact and Its Signers* (Boston, 1920); Lois K. Mathews, "The Mayflower Compact and its Descendants,"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Association, Proceedings* 6 (1912-13): 79-106; Arthur Lord, "The Mayflower Compact,"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Proceedings*, n.s., 30 (1920), 278-94; Mark L. Sargent, "The Conservative Covenant: The Rise of the Mayflower Compact in American Myth," *The New England Quarterly* 61 (1988): 233-51.

41 Thomas Hooker, *Survey of the Summe of Church Discipline*, part. I, 69: Increase Mather, *Renewal of Covenant the great Duty incumbent on decaying or distresse Churches* (Boston, 1677), preface; John Cotton, *The Wa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New-England* (London, 1645), 4; John Davenport, *The Power of Congregational Churches Asserted and vindicated* (London, 1672), 39: Richard Mather, *A Apologie of the Churches in New-England for Church-Covenant* (London, 1643), 21-22.

42 Thomas Hooker는 인간들의 공동체 속에서 인간은 본성상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할 권리가 없으며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며 인간관계는 모두 쌍무적인 계약관계임을 강조하였다: "There must of necessity be a mutual engagement, each of the other, by their free consent, before by any rule of God they have any right or power, or can exercise either, each towards the other … From mutual acts of consenting and engaging each of other, there is an impression of engagement results, as a relative bond, betwixt the contractours and confederatours, wherein the formalis ratio, or special nature of the covenant lieth, in all the former instances especially that of corporations. So that however it is true, the rule binds such to the duties of their places and relations, yet it is certain, it requires that they should first freely ingage themselves in such covenants, and then be careful to fulfill such duties."

관계(Dual Relationship) 성격을 지닌 사회를 구성하셨다. 즉 통치자와 백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질서를 위하여 사회언약을 체결토록 하신 것이다. 청교도들은 이 사실에 입각하여 사회언약을 체결하되 자율적 동의(Free Consent)를 기본 법칙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자율적 동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기회로 이해하였다.[43] 이러한 상호관계성은 17세기 뉴잉글랜드가 정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회언약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44]

한편, 구약시대에는 하나의 사회 공동체 속한 한 사람의 실수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곧 바로 그 사회 구성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이어지게 되었다. 청교도들은 바로 이러한 구약시대적 사회공동체 구조관계를 신대륙 공동체에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들은 신대륙을 향한 첫 항해 가운데 자신들의 항해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즉,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법률과 은혜의 지배하에 상호간에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리며 일반적인 선(General Good)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자 하였다.[45] 청교도들이 추구하였던 신대륙 사회는 결코 개개인의 삶을 위한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일원화된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630년 아벨라호(Arbella)에 탑승하여 순례자의 길을 떠났던 존 윈드롭은 선실 위에서 신대륙을 향해 떠나는 목적이 단순히 잉글랜드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새 희망의 땅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항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상호 간의 자율적 동의를 통해 '거룩한 신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떠나는 것이라는 점

---

43 Samuel Willard, *Covenant-Keeping the Way to Blessedness* (Boston, 1682), 6.

44 Edmund S. Morgan, *The Puritan Family: Religion & Domestic Relations in Seventeenth Century New England*, 28.

45 George Bancroft, *Bancroft'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 I (Macmillan & Co, 1876), 234; Cf. Charles Borgeaud, *The Rise of Modern Democracy in Old and New England* (Swan Sonnrnschein, London, 1894), 110.

을 확고하게 선포하였다. 이들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주님을 더욱 잘 섬기고 주님이 주신 이웃들 즉, 공동체를 주님의 지체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섬겨서 이 세상에 보편화된 죄와 부패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수하게 지켜가기 위함임을 호소하였다:

>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실 때에는 모든 조항들이 철저하게 준수되기를 주시하신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도록 임무를 부여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계약을 작성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명령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중 하나에 실패하였고, 이러한 구실로 인하여 그가 그의 임무를 잘 수행하였으면 자기의 것이 되었을 왕국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 언약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 그분은 이 언약을 비준하시며 우리의 임무를 확증하시며, 그 언약 조항에 포함된 내용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행되기를 기대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미 숙고한 목적들인 이 조항들을 준수하기를 게을리 하며,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며 우리의 육적인 욕망을 수행하며 우리 자신과 후손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이 세상에 빠져 산다면, 주님은 이러한 실패한 자들에게 진노를 발하시며 복수하실 것이며 이러한 언약을 파기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실 것이다.[46]

이와 같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을 건너감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할 원인을 자신들의 신분사상에 근거하여 찾았다. 이들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모델을 추구하는 선민사상이 충만해 있었다. 게다가 당시 청교도들의 계시록의 종말론 사상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적그리스도와의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여 그의 백성들을 죄와 암흑의 세계에서 구출하여 새 시대를 이룩해가야 한다는 시대적 의무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47]

---

46 John Winthrop to John Winthrop, Jr., *Winthrop Paper*, vol. II (Boston: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931), 294.

특히 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역대하 23장에 제시된 제사장 여호야다(Jehoiada)가 "자기와 뭇 백성들과 왕 사이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대하 23:16)고 주장하면서 세웠던 사회언약이자 정치적 언약을 잉글랜드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뉴잉글랜드 청교도들도 이를 신대륙에 그대로 수용하였다. 리차드 매더(Richard Mather)는 역대하 23장 본문은 뉴잉글랜드 개척정신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구절임을 강조하였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였을 때 … 이 언약은 왕과 백성 사이 모두가 함께 맺은 주님의 언약 중 하나였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해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백성들을 통치할 것을 약속하였고, 백성들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성들을 향한 왕의 의무들과 왕에 대한 백성들의 의무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맺은 언약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48]

평신도 지도자였던 로버트 쿠쉬만(Robert Cushman)은 1622년 분리파 청교도들이 정착한 뉴플리머스(New Plymouth)에 도착한 지 1년 후 강단에서 이르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남은 자로서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 장소가 다름 아닌 뉴잉글랜드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였다: "만일 하나님께서 터키의 노예, 또는 교황의 독재 등으로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 있는 당신 백성들을 벌하시기로 하신다면(그들의 냉랭함, 정욕, 복음의 육신적 남용, 자만 등으로), 물론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이 온다면, 또는 사탄이 풀어져서 그들을 대항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한다면(계 12:14,15) 여기 날개 가진 사람들이 이 광야로 도피할 길이 열려져 있다. 유대교회가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방인의 충만을 가져오셨다(행 11: 20,21)."[49]

---

47 James Fulton, MaClear, "New England and the Fifth Monarchy: the Quest for the Millennium in Early American Puritanis," in *Puritan New England: Essays on Religion, Society, and Culture*, (ed.), Alden T. Vaughan and Francis J. Bremer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7), 68; Joy Gilsdorf, *The Puritan Apocalypse: New England Eschatology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9)를 참조할 것.

48 Miller,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415.

이러한 종말관과 선민의식은 존 윈드롭에게도 분명하게 보인다. 그는 하나님께서 잉글랜드를 처절하게 징벌하셔서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대륙에 가서 거룩한 선민으로서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성령으로 하나된 평화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과 타인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이웃 개념과 교회 성도들의 개념과는 사뭇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의 삶의 실패는 개개인의 부도덕적인 행위들과 파괴적인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잉글랜드 선민공동체가 구약시대부터 맺어온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신개척지에 이주하여 구약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시키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언약을 철저하게 지켰을 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되시며 튼튼한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셨음을 상기하며, 바로 이러한 구원적 축복을 향유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이웃과 타인의 실수와 범죄는 곧 바로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내 삶의 실패와 파괴를 의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됨이라는 연합의 정신을 철저하게 고수하고자 하였다. 존 윈드롭의 선언은 초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제 이러한 파산을 피하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좋은 것을 남길 수 있는 길은 미가 선지자의 충고를 따르는 것으로, 의롭게 행동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우리의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일에 한 사람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

---

49 Robert Cushman, *A Sermon Preached at Plymouth* (New England), 1621. By one of the Pilgrims who landed in Plymouth in the year sixteen hundred twenty. Being the first sermon ever preached in New England. 윌리엄 브레드포드는 1620년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향해 이주하게 된 원인은 잉글랜드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믿었다. Cf. William Bradford,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A New Edition, the Complete Text, with Notes and Introduction by Samuel Eliot Morris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0), 23-27.

> 들의 곤핍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베풀어야 하며, 온유함, 부드러움, 인내, 자비로 함께 사역해야 한다. 우리는 서로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놓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일하고 고난을 당하며 사역에 있어서 항상 우리의 사역과 한 몸의 일원인 우리의 공동체를 항상 눈앞에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평화의 줄로 하나가 되어 연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하심, 진리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열 명의 우리들은 천 명의 적을 저항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에 사람들은 후대의 정착지를 놓고 말할 것이다.[50]

또한 청교도들의 사회공동체를 위한 국가건설을 추구하는 모습은 1634~1636년 사이에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를 형성하였던 세 개의 도시들(Hartford, Windsor, Wethersfield)의 "기본 규칙서"(the Fundamental Orders)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51] 이 문서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방국가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공동체원들 가운데 평화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과 자유를 수호하며 교회 규율을 준수하며 율법과 규칙과

---

50 John Winthrop, "A Modell of Christian Charity," *Winthrop Papers*, vol, II, 1623-1630 (Boston: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931), 294-95.

51 이 명령서의 원문은 공동체의 사회성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For as much as it hath pleased the Almighty God by the wise disposition of his diuyne puridence so to Order and dispose of things that … And well knowing where a people are gathered togather the word of God requires that to mayntayne the peace and vnion of such a people there should be an orderly and decent Gouernment established according to God, to order and dispose of the affayres of the people at all seasons as occation shall require; doe therefore associate and coniyne our selues to be as one Publike State or Commonwealth... psearue the liberty and purity of the gospell of our Lord Jesus w we now pfesse, as also the disciplyne of the Churches, w according to the truth of the said gospell is now practised amongst vs... Thorpe, *Federal and State Constitutions*, "Charter of the Colony of New Plymouth Granted to William Bradford and His Associates -1629," 1. 519. Cited in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87.

질서를 존중해야함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정부 형성의 목적은 법률과 규율과 질서를 수립함에 있지만, 이러한 법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시민 공동체의 복리증진 및 질서유지,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데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1640년 12월 18일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 워번(Woburn)에서 체결한 "워번 도시 규칙서"(Town Orders for Woburn)는 새로운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고자 언약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사회언약의 내용을 의논한 후 사회언약서를 작성한 결과물이다.[52] 이 사회 언약서에서는 당시 워번도시의 땅 가격과 토지사용기한을 정하였으며, 그리고 각자의 영지에 펜스를 만드는 문제점과 집을 건축하기 위한 나무 재목들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 등 당시 사회상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53] 비록 위번 도시규칙서에는 신학적인 또는 이론적인 언약의 성격은 아닐지라도 세속적(Secular)인 언약서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서는 청교도들의 '신적 사회공동체 구축'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이며, 이는 당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사회활동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적시한 내용들로 구성된 공동체 사회 규약서이기 때문이었다.

---

52 Woburn, MA, "Town Records and Miscellaneous Papers: Reel 5; *Town Meetings, Taxes*, 1640-1766," FHLC M#: 0893363, vol. 1, 2, cited in Weir, *Early New England - A Covenanted Society,* 104.

53 워본 도시 규칙서를 체결한 후 9년이 지나자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인 메드필드(Medfield)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회언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성격상 워본 도식 규칙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합신학(Federal Theology)적인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 cf. Medfield, M.A. *Town and Meeting Records*, vol. 1-3, 1649-1788; Medfield, M. A. *Exercises at the Bicentennial Commemoration of the Burning of Medfield* (Medfield, M.A. 1876); B. Kathrine Brown, "Puritan Democracy in Dedham, Massachusetts: Another Case Study," *William and Mary Quarterly*, ser. 3, 24 (1967): 378-96.

5. 결론: 언약신학의 사회성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잉글랜드 정치사상과 앙글리칸 교회신학 속에서 하나님의 사회 공동체를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뉴잉글랜드로 이주하여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은 신대륙에 정착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질서 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사랑과 베풂과 돌봄과 나누는 사역을 수행하였다. 즉 청교도들의 하나님의 창조원리 수행의지는 뉴잉글랜드의 대사회적 책임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에 있어서 청교도들은 공동체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전적 타락한 존재들임"을 항상 전제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창조질서의 회복은 '뉴잉글랜드의 신적 공동체' 수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길을 열어 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통한 창조질서 회복 사건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언약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체결하신 구속언약에 근거하여 창조주와 하나님의 백성사이에 체결된 은혜언약에 기초한 '신적 공동체'구현의 배경으로 이해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언약 사상은 구약시대 선민 공동체의 거룩성과 구별성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해하였다. 즉, 언약의 실행여부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되었다.

신대륙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이러한 언약사상에 근거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회언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교회언약사상은 이미 분리주의자 로버트 브라운이 잉글랜드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시도되었으며, 프란시스 존슨에 의해 추진되어 왔고,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던 헨리 제이콥을 위시하여 힝긴슨과 존 카튼, 휴 피터를 중심으로 교회언약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증보하여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실현코자하였다.

이 교회언약은 당시 교회론의 본질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즉, 진정한 교회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관이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호 간에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방법들을 구체화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언약 공동체임을 확고히 하였다. 특히 이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뜨거운 기도와 감격에 찬 말씀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소로서의 교회관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러한 청교도 교회관은 당시 잉글랜드 앙글리칸의 형식에 찬 예배로 일관된 모습에서 벗어나, 모든 공동체원들이 주의 말씀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됨의 위상을 정립하고 평화와 거룩과 교제와 감사로 채워진 예배 공동체를 구현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은혜언약에 근거한 교회언약은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는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메이플라워 엄숙 동맹 및 언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630년 아벨라호를 탑승한 항해자들은 존 윈드롭을 중심으로 ‘사회언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회언약서는 초기 청교도들이 정착하였던 뉴플리머스를 중심으로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 전역에 걸쳐서 수행되었던 소위 ‘신적 공동체 대헌장(The Magna Carta of Divine Society)’이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처럼,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구약적 선민의식 사상,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자 사상으로 충만해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피난처를 예비해주시되 바로 이곳이 뉴잉글랜드를 선물로 주셨음을 확신하였다. 이들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이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녕과 해방과 평화와 풍요로움을 약속하였지만, 불순종시에는 이방세계에 팔아넘김으로 노예생활과 파멸과 죽음으로 그 언약을 이행하셨음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 공동체 가운데 일부 또는 한 사람의 실수와 불순종은 전체 공동체를 파국으로 이끌었던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대륙 언약공동체(Covenanted Society)가 하나님과의 전체적 언약을 체결하고 이 언약의 조건들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초대교회의 이상향이었던 '언덕 위의 도시'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의 선민의식 속에는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횡횡하였던 "임박한 천년왕국 종말론"이라는 잘못된 신학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즉, 잉글랜드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종말관은 한편으로는 새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머지않은 장래에 펼쳐질 세상을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신앙적인 권면과 사랑으로 연합되는 결과를 마련하였다.

이 사회를 건설함에 있어서 세웠던 개인언약과 교회언약 그리고 사회언약, 국가언약(정치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행위자들의 자발적 순종의 조화를 통한 하나님의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언약사상은 알미니안주의(Arminianism)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도덕율법폐기론(Antinomianism)자들의 비성경적인 주장을 반박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간과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54] 이러한 청교도들의 언약의 순수성과 자발성 원칙은 중생과 칭의 사상에 그쳤던 당시 잉글랜드 앙글리칸적 신학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사회의 구현'이라는 성화와 경건의 추구의 성숙된 모습으로 이행되었다. 이처럼 청교도 언약사상은 뉴잉글랜드 사회 구성원들의 신앙관을 비롯하여 삶의 철학과 목적, 교회의 사회적 책임론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공헌을 이룩하였다.

---

54 von Rohr,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8-9.

참고문헌

Ames, William. *The Marrow of Sacred Divinity,* UK: London, 1643.

Bancroft, George. *Bancroft'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Macmillan & Co, 1876.

Borgeaud, Charles. *The Rise of Modern Democracy in Old and New England*. Swan Sonnrnschein, London, 1894.

Bowman, George E. *The Mayflower Compact and Its Signers*. Boston, 1920.

Bradford, William. *Bradford's History of the Plymouth Plantation, 1620-47*. 1968.

Of Plymouth Plantation 1620-1647, A New Edition. The Complete Text with Notes and Introduction by Samuel Eliot Morrison. New York: Alfred A. Knopf, 1970.

Brattle, William. *Public Thanksgiving.* Now 22. Harvard University MS, 1699.

Browne, Robert. *A True and Short Declaration, both of the Gathering and ioyning together of Certaine Persons: and also of the Lamentable Breach and Division which fell amongst them*, 1583.

Burrage, Champlin. *The Church Covenant Idea: Its Origin and Its Development*.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04.

Carden, Allen. *Puritan Christianity in America-Religion and Life in Seventeenth-Century Massachusetts*. Baker Book House, 1990.

Cotton, John. *The Doctrine of the Church to which are Committed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erein is Demonstrated by Way of Question and Answere what a Visible church i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Gospel.* London: Printed for Ben. Allen & Sam. Satterthwaite, 1643.

_____. *The Grounds and Ends of the Baptisme of the Children of the Faithfull*. London, 1647.

Cushman, Robert. *A Sermon Preached at Plymouth* (New England). A.D. 1621.

Davenport, John. *The Power of Congregational Churches Asserted and vindicated*. London, 1672.

Gilsdorf, Joy. *The Puritan Apocalypse: New England Eschatology in the Seventeenth Century*.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89.

Gookin, Nathaniel. *Sermon* [1687]. *Sermon Notes* [1687]. Harvard University MS.

Gregory, James. *Puritanism in the Old World and in the New From its Inception in the Reign of Elizabeth to the Establishment of the Puritan Theocracy in New England-A Historical Handbook*. Fleming H. Revell Company, 1896.

Hooker, Thomas. *A Comment upon Christ's Last Prayer*. London, 1650.

_____.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London, 1659.

Hubbard, William. *The Happiness of a People in the Wisdoms of their Rulers*. Boston. 1676

Jacob, Henry. *The Divine Begining and Institution of Christs true Visible or Ministeriall Church*. Leydon, 1610.

Knox, David. B. *The Doctrine of Faith in the Reign of Henry VIII*. London, 1961.

Lord, Arthur. "The Mayflower Compact." *American Antiquarian Society Proceedings* n.s. 30 (1920): 278-94

Mather, Cotton. *Pillars of Salt*. Boston, 1699.

_____. *Magnalia Christi Americana, or, The Ecclesiastical History of New- England, from its first planting in the year 1620*; unto the year of our Lord, 1698: in seven book. London: T. Parkhurst, 1702.

Mather, Increase. *A Sermon Wherein is Shewed that Excess in Wickedness doth bring Untimely Death*. Boston, 1685.

_____. *Renewal of Covenant the great Duty incumbent on decaying or distresse Churches*. Boston, 1677.

_____. *Solemn Advice to Young Men*. Boston, 1695.

_____. *The Folly of Sinning*. Boston, 1699.

_____. *The Times of Men are in the Hand of God*. Boston, 1675.

Mather, Richard. *A Apologie of the Churches in New-England for Church-Covenant.* London, 1643.

_____. *Farewell Exhortation.* Cambridge, 1677.

_____. *The New Covenant, or, A teatise unfolding the order and manner of the giving and receiving of the covenant of grace to the elect: as also, shew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legalist and the ture Christian: being the substance of sundry sermons.* London: Printed by M.S. for Francis Eglesfield & John Allen, 1654.

Mathews, Lois K. "The Mayflower Compact and its Descendants." *Mississippi Valley Historical Association Proceedings* 6 (1912-13).

McGiffert, Michael. "Grace and Works: The Rise and Division of Covenant Divinity in Elizabethan Puritanism." *HTR* 75 (1982).

_____. "From Moses to Adam: The Making of Covenant of Works." *Sixteenth Century Journal* (19/2).

Miller, Perry. *The New England Mind: the Seventeenth Century*. 2d Ed. Cambridge, 1954.

Miller. Perry & Thomas H. Johnson. (Eds.) *The Puritans A Sourcebook of Their Writings.* Vol. I, 188.

Mitchell, Jonathan. Manuscript: *Sermons from Psalms.* 65a.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Moller, Jens. “The Beginnings of Puritan Covenant Theology.” *JEH* XIV (1963): 51-52.

Moodey, Joshua. *An Exhortation to a Condemned Malefactor.* Boston, 1686.

Morgan, Edmund, S. *The Puritan Family: Religion & Domestic Relations in Seventeenth Century New England.* New Edition. Revised and Enlarged. Harper & Row, New York, 1966.

_____. *Visible Saints: The History of a Puritan Ide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3.

Oakes, Urian. *A Seasonable Discourse wherein Sincerity and Delight in the Service of God is earnestly pressed upon Professors of Religion.* Cambridge, 1682.

Perkins, William. “Golden Chaine.” In *The Works.*

Rathband, William. (Ed.) *A Bridfe narration of Some Church Courses*, etc. London, 1644.

Rohr, John. Von. *The Covenant of Grace in Puritan Thought.* Atlanta: Scholars Press, 1986.

_____. *The Way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New-England.* London, 1645.

Samuel Willard. *Impenitent Sinners*. Warned of Their Misery and Summoned to Judgment, 1698.

_____. *A Remedy against Despair*. Boston, 1700.

Sargent, Mark L. “The Conservative Covenant: The Rise of the Mayflower Compact in American Myth.” *NEQ* 61 (1988): 233-51.

Shepard, Thomas. *Works*. Edited by John Albro. Boston, 1853.

_____. *Sound Believer: A Treatise of Evangelical Conversion・Discovering the Work of Christs Spirit, in Reconciling of a Sinner to God*, 1659.

_____. *Three Valuable Pieces*. Boston, 1747.

Thatcher, Thomas. *Boston Sermons*. May 12, 1678.

Trinterud, Leonard. H. "The Origins of Puritanism." *Church History* XX (1951).

Vaughan, Alden T. & J. Bremers, Francis. (Eds.) *Puritan New England: Essays on Religion, Society, and Cultur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77.

Walker, Williston. *The Creeds and Platforms of Congregationalsim.*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3.

Weir, David A. *Early New England-A Covenanted Societ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5.

White, John. *The Patriarch of Dorchester [Dorset] and the Founder of Massachusetts 1575-1648 with an Account of the Early Settlement in Massachusetts 1620-1630*. New York: G.P. Putnam's Sons, 1930.

Willard, Samuel. *A Complete Body of Divinity*. Boston, 1736.

_____. *Boston Sermon*. July 6, 1679.

Winthrop, John. "A Modell of Christian Charity." *Winthrop Papers.* Vol. II. *1623-1630*. Boston: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931.

_____. *Winthrop Paper.* Vol. II. Boston: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1931.

Ziff, Lazar. *The Career of John Cotton: Puritan and the American Experienc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원종천.『청교도 언약사상: 개혁운동의 힘』.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ctrine of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urch and the Thought of Covenant Among Puritans in New England

Yoon, Jong-Hun

Some theorists of Puritans have insisted that Puritans in New England have no response and a negative attitude toward their social responsi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whether this is true or not, by analysing primary sources of Puritans in the 17th century, and to search for the theological backgrounds of Purit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ir own methodology.

This paper shows various results. First, the Covenant of Theory, the most important element supported by Scriptures, was a backdrop for the theory of social responsibility as a sincere believer. In particular, the early representatives of Puritans in England, such as William Tyndale, John Bale, Thomas Cartwright, and John Preston, acted upon the pioneers of New England, such as John Cotton, John Winthrop, Thomas Hooker, and Thomas Shepard etc.

Secondly, Puritans tried to realize Puritan divine community in New England through double covenant theory-the covenant of works and the covenant of grace, known as the Personal Covenant.

Thirdly, they also established the thought of church covenant by developing the personal covenant, in particular the covenant of grace. This covenant manifests the fact that all church members accept the

scriptures as the true God's words, and God appoints several officers in church to serve God's works and to work for social duty. This thought of the covenant of church appeared in the church in New England through leaders such as Henry Jacob, Francis Higginson, John Cotton, John White, Huge Peter, and John Winthrop. This covenant included the necessity of church members to be united in Christ for social responsibility, also the method of the mutual service, the devotional attitude to construct the God's ideal communal society.

Lastly, the Puritans who voyaged to the New World, made a social covenant in their cabin and in New England to create a new social community as a fundamental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this covenant depict that they should, as a divine community, obey God's Word, love Him sincerely, take care of their members with Christ's mind, share joys and sorrows, and work together as united community members. It is not so difficult to find the thought of this social covenant in "the Mayflower Compact and the Magna Carta of Divine Society."

Key-Words : New England, Puritan, Social Covennant, Church Covenant, Personal Covenant, Social Responsibility